

‘수돗물 원격 검침’ 어르신 고독사 막는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전남 127가구 ‘위기 알림 서비스’ 운영 오랜시간 물 이용 없을 때 사회복지기관·보호자 등에 문자 알림

농촌지역에서 혼자 사는 고령 농업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원격 검침’이 위기 홀몸노인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남지역 12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수돗물 원격 검침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위기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7년 경북 고령을 시작으로 완도(45가구), 함평(40가구), 장흥(30가구), 나주(12가구) 등 전국 18개 지자체 840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사고에 취약한 홀몸·치매 노인, 장애인 등이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검침한다. 1t 단위로 측정하는 기존 기계식 계량기와 달리 1l 단위의 세밀한 물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이다. 계량기와 연결된 원격 센서를 통해 수자원공사로 실시간 사용량

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위기알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는 1가구당 평균 45만원 정도 든다.

수돗물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 문자로 알려준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 9월 수도는 기저 사용량이 거의 없어 다른 검침항목에 비해 사용량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특정 시간대 주거상태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량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수도 검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수자원공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폭염 속에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던 경북 고령의 한 80대 여성이 이 시스템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이 전혀 없거나 평소와 달리 많을 때 해당 가정에 연락을 하면 장기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며 “홀몸노인 등 취약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직원이 전남지역 한 고령 1인 가구를 방문해 ‘위기 알림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다. <영·섬본부 제공>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위기 알림 서비스를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남지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9만9832명으로, 전체 168만 가구의 5.9% 정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민 횡감’ 광어의 추락

소비 감소에 가격 전년비 16%↓ 이마트, 8일까지 43% 할인 판매

‘국민 횡감’으로 불렸던 광어가 소비 감소·수출 부진으로 가격 급락을 겪고 있다.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완도산 활광어 산지가격은 kg당 1만5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2650원)보다 2000원 넘게(16.5%↓) 떨어졌다. 2kg 대형 광어 가격은 1만1417원으로, 지난해보다 35.7% 급락했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광어의 국내 소비량이 2017년 3만7584t에서 지난해 3만3060t으로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광어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치류 수출액(3088만7000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9.8% 감소했다.

광주·전남 7개 이마트는 광어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무게 2kg가 넘는 ‘슈퍼 광어’로 만든 광어회를 8일까지 정상가보다 43%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주력 판매해 왔던 1.3~1.5kg 무게가 아닌 2kg 이상 광어 원물을 상품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광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고 식감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광주본부, 새날학교 농산물 전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 5번째)는 지난 2일 (사)한국새농민 광주시회 회원 기부 45쌍이 생산한 400만원 상당 농산물을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벼·맥류 정부 보급종 이달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봄파종용 보급

국립종자원은 올 봄에 파종할 벼·맥류 정부 보급종 추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고 봄파종용 벼·맥류 보급종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물량은 2892t으로 벼는 2727t, 봄파종용 맥류는 165t이다. 벼 보급종 신청 대상은 22품종 2727t으로 메벼 20품종 2683t, 찰벼

2품종 44t이며, 미소독 종자라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단위는 20kg/포이며, 품종별 공급계획량은 미품 111t, 삼광 861t, 새일미 229t, 영호진미 173t, 동진찰 29t 등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맥류 보급종은 봄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 가을파종보다 25%정도 양을 늘려 파종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종자원 측은 설명했다. 봄파종 적기(2월15~28일)에 파종을 하면 10월말 이후가

을파종하는 것보다 수확량이 5%정도 많다.

공급가격은 1포당(20kg) 걸·청보리 소독종자 2만2950원, 쌀보리 소독종자 2만5420원, 밀 미소독종자 2만5270원, 호밀 미소독종자 4만2510원으로 지난해 가을파종용 공급가격과 동일하다.

벼 보급종은 오는 10일부터 3월31일까지, 맥류(봄파종) 보급종은 28일부터 2월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중동 리스크’ 발생...국제유가 동향 등 관심 국내 증시 1월 효과에 ‘IT·중소형주’ 상승 기대 시진핑 주석 방한 확정 중국관련주 관심 필요

2020년 증시 출발점에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발생했다. 미국이 최근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습격 및 미군시설에 대한 포격 배후로 친이란 시아파민병대를 의심하고 표적 2개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라크군부 실제 사령관과 친이란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가 습격됐다. 이라크정부도 미국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며 중동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이번 공습이 얼마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합동 군사훈련한 것을 상기하면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에 미묘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으로 이번주 국제유가 동향과 중동정세에 관심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한다.

새해에는 기대감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직전 해 부진했으면 새해에는 투자자들도 상승반전을 기대하고 시장흐름이 좋으면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한다.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1월 효과의 배경이다. 2019년 국내증시는 글로벌증시의 높은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2020년에는 가격부담이 높아진 글로벌증시 보다 이머징(Emerging·신흥) 국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1월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8년은 2017년 상승추세가 이어지며 2018년 2월2일 2607.10pt 로 고점을 기록하기 전까지 상승흐름이 이어졌고 2019년도에는 2018년말 하락세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1월4일 1984pt를 저점으로 1월31일 2222pt까지 상승하며 저점 대비 11.9% 상승했다. 2020년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대부분 긍정론 일색이다. 1월7일 삼성전자 4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되었는데 영업이익수준이 6조8000억원선으로 3분기 7조8000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은 1분기 7조원대를 다시 회복한 후 분기별로 1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강세와 2020년 국내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반도체업종은 46.2% 올랐고 실적개선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실적발표가 단기 부담으로 작용하며 조정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이외에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대형 반도체주는 비중을 조절하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중소형주와 핸드폰 등 IT하드웨어 중소형주로 관심을 늘려볼 필요가 있다.

1월7일~10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0’(CES: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이 열린다. 글로벌 최대 IT 전시회로 과거에는 가전 중심의 행사였지만 지금은 가전뿐 아니라 AI, 헬스케어, 뷰티, 자동차 등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업계가 참여하는 종합박람회다.

또한 1월12일~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피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 글로벌 최대 행사로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을 중심으로 1월 코스닥강세를 이끌었던 배경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 중 방한이 확정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고려하면 중국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1월은 여전히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시장에 긍정적인 시기로 조정시에는 업종 순환매 및 중소형주 매기 확산흐름에 대비한 저점매수가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